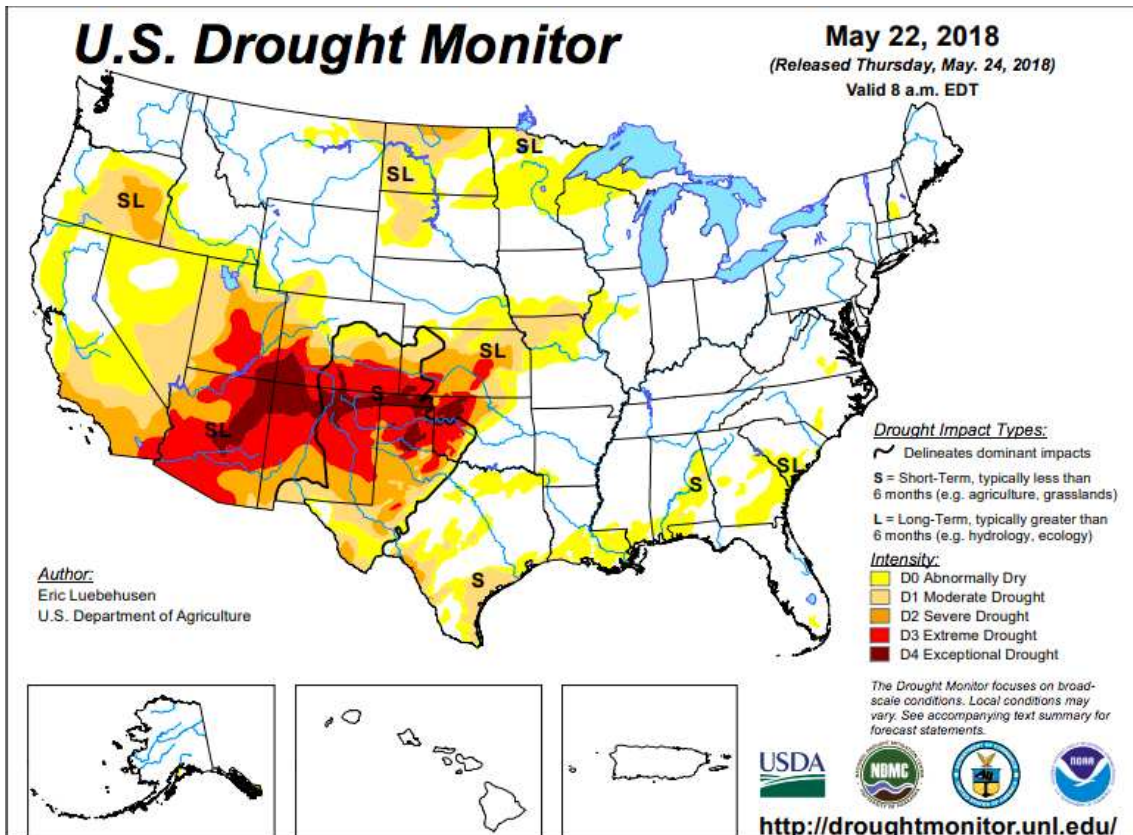


5월 2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22)

□ 미국 기후 현황(5/20~5/26)

중부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씨가 이어졌다. 오하이오 및 중남부 일대에서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다. 북부 및 대서양 연안 중부 지역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0°F 이상 높았다. 플로리다, 뉴 잉글랜드 북부,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다. 남동부 일대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뒤이어 열대성 태풍 Alberto가 찾아와 또다시 비가 내렸다. Alberto로 인해 5월 28일 플로리다의 Panama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미시시피강 일대와 대서양 연안 남부 일대에서는 2~4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등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에서는 비가 조금 내렸다.



□ 농업 현황 요약(5/21~5/27)

주의 마지막인 5월 27일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대평원 북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6°F이상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65°F까지 올랐다. 예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씨에라 네바다 산맥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3°F 정도 낮았다. 플로리다와 조지아에서는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텍사스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가뭄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

□ 세계 기후 현황(5/20~5/26)

■ 유럽: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스칸디나비아 상공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중부와 남부 유럽 일대에서는 5~6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비가 내려 밀과 보리의 수확작업이 늦춰졌다. 독일 북부, 폴란드 북서부,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북부와 중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4°C 정도 높았고, 주요 농업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6°C까지 높은 지역도 있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 중부와 러시아 서부에서는 2~7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특히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 등 최근 파종을 마친 지역에 집중되어 밭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몰도바, 우크라이나 서부 등에서는 지난 60일 동안의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같은 가뭄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남부와 흑해 일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6°C 이상 높은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 동아시아: 동부 일대에서는 지역에 따라 10~25mm, 25~1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중국 북동부 일대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는데, 옥수수, 대두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남부 일대에서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신장 등 서부 일대에서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내 주요 벼 재배지역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일본 북부 지역 일대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 호주: 서호주 일대에서는 2018년 작물 재배 기간 처음으로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강우량은 5~30mm 내외였으며, 이번 비는 겨울 작물을 비롯해 최근 파종을 마친 작물들의 밭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호주, 동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확작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남부와 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했고, 서호주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2~3°C 정도 높았다.

■ 아르헨티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체로 맑고 서늘한 날씨를 보였다. 중부 일대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4°C 정도 낮았고, 밤 동안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북부의 면화 재배지역인 Chaco, Formosa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0~20°C 내외를 오르내렸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보고서에 따르면, 5월 24일 기준 옥수수와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44%, 78%를 기록했다.

- 브라질: 남서부의 Mato Grosso에서부터 Parana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남부에서는 밀의 파종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Parana 지역의 5월 21일 기준 밀 파종률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Mato Grosso 동부에서부터 Minas Gerais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10mm가 조금 넘는 양의 비가 내렸다. 사탕수수 재배지 일대인 Sao Paulo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Parana 남동부 일대 및 Santa Catarina,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5°C 정도 낮은 서늘한 날씨를 보였다.